

반짝이던 연대와 외침...새롭게, 더 빛나는 민주주의로



1980년 5월 전남 광주시와 화순군을 이어주던 옛 너릿재 터널(전남도 5·18사적지 화순-2호)에 어둠이 내리자 차량들이 숨가쁘게 오가며 붉은 피를 토하듯 긴 궤적을 남기고 있다. 너릿재는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 항쟁에 동참할 사람들과 줄을 이은 피난민들의 행렬을 지켜본 역사의 증인이다. 신군부에 맞서 외롭게 투쟁하던 광주에 새로운 희망과 출구 역할을 했던 옛 너릿재 터널처럼 올해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이 민주, 평화, 인권의 대동세상을 여는 희망의 출구가 돼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태규 기자

우리는 보았다. 지난 겨울 무도한 정권의 민주주의 침탈과 헌정 유린을.	멀해 가는 저열한 정권의 몰락.	렸던 광주. 광주의 씨앗을 자양분 삼아 비상계엄과 내란
우리는 또 보았다. 그 엄혹함에 굴하지 않았던 강렬한 외침과 반짝이던 빛의 연대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각한다.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제주에서 강원까지, 그 거리와 광장을 메웠던 124일의 여정이, 80년 5월 광주의 거리와 광장을 채웠던 나눔, 그 연대와 다르지 않음을.	세력의 야만에 맞서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2025년의 외침과 반짝임.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다. 시린 바람, 서슬 퍼런 총구에도 꺾이지 않았던 그 드높은 함성과 형형색색 뒤로 소	45년 전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화의 씨앗을 뿌	그렇게 우리는 다시 희망한다. 45년의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그 씨앗과 그 외침, 그 반짝임이 더 새로운 대한민국, 더 빛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기를. 정근산 기자